

민생경제점검회의의 모두발언(2.19)

- 지금부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,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.
 - 특히, 건설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
 -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.
- 이에 정부는 1/4분기 민생·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- 우선,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겠습니다.
 - 부산·대전·안산¹⁾에 총 4.3조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습니다.
 -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겠습니다.
 - 용인 반도체 산단은 '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습니다.
-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 -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,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.

1) ①부산시 부산진~부산, ②대전시 대전조차장, ③안산시 초지~중앙

-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,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~5월 중 결정하겠습니다.

-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겠습니다.

□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SOC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.

-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'27년까지 약 2,600억원을 투입하고
-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% 집행하겠습니다.

□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.

- 작년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습니다.
-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습니다.
- 금년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²⁾ 시행에 맞춰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 등을 개선하고
 - 「재건축·재개발촉진법」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

□ 이어서, 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. (국토부 장관 모두발언)

□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

2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